

“ 목시(비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 ” <잠 29:18>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이곳 케냐는 지난 12월 27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불어닥친 정치 폭풍이 수천명의 사상자와 수십만명의 피난민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선거 이후로 약 2달간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2월 28일 전UN사무총장 Kofi Annan, 미국무장관 Condoleezza Rice, 현UN사무총장 반기문 씨 등의 중재역할로 여당과 야당이 평화조약을 맺은후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를 세움으로서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었던 그야말로 악몽같았던 종족간의 반목, 도적질, 방화, 살인은 많은 이들의 마음밭에 서로간 깊은 쓴뿌리를 심어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모로 기도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요사태중에 피해를 입은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 한명은 폭도들에 의해 집이 불타서 친척 집에 얹혀사는 신세가 되었고, 또 다른 선생님은 폭도들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이 되어서 영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훈련원 졸업생 중에는 소요사태 중 균중을 향해 무자비하게 쏘아댄 경찰의 총에 23살난 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에는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친척들 중에 집이 불타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로 이곳 아프리카 땅에는 평화를 희망하는 요소들이 끊이 없는듯 싶습니다. 케냐가 이제 조용해진다 싶더니 이제는 짐바브웨가 대선 이후 소요 사태를 겪는가 하면, 얼마 전부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외국인 흑인들을 혐오하는 폭도들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단 역시 남북간의 휴전선 지역인 Abyei에서 유전을 놓고 북군과 남군이 대립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송재은 선교사가 하는 주된 일이 현지의 리더를 곧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아프리카의 도전들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현지인 동역자들을 보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러다보니 현지인 사역자들의 삶과 그들의 성장의 모습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들의 삶이 형통하고 교회나 사역이 성장하면 우리들도

덜덜하게 기뻐하게 되지요. 아직 저나 송 선교사는 아이들이 어리지만 아마도 이후에 그들이 장성해서 잘되면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월말에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우리 유치원 꼬마들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 어린이 사역에는 많은 인내와 투자가 요구됩니다. 일년간 성심껏 가르쳐온 교사들과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격려와 응원을 담백 받으며 총 8명의 학생들이 유치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부디 먼 훗날에 이들중 복음의 능력으로 케냐를 움직일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며 저들에게 우리의 축복을 실어 떠나 보냈습니다.

원래 1월에 예정했던 수단 방문은 케냐의 소요사태로 인해 2월초로 약간 늦추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고 Edward Kinyanjui 선교사님과 Josephine 사모님이 현재 사역하는 수단 선교의 중심지 Juba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수단은 사실 Khartoum을 중심으로 한 북부 수단, Juba를 중심으로 한 남부 수단, Darfur를 중심으로 한 서부 수단으로 나뉘어 각기 지방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예 세 지역의 방문 비자 자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불확실한 사전 정보로 인해 가고 오며 비자때문에 어려움을 좀 겪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케냐보다도 20년은 낙후돼 보이는 수단 선교지의 실정 가운데서,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두분의 모습에서 그리고 나아가 이 들을 모범적인 주의 종으로 인정하는 주위 사람들 (사역자훈련원 학생들, 교역자협의회 목회자들, 주변 이웃들 등) 의 간증에서 아프리카 최대국인 Sudan의 복음화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로 서는 법을 그동안 이렇다할 경제적 후원도 없이 터득한 두 사역자의 인정된 (딤후2:15)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 8명의 학생들이 근처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쓰는 사역자훈련원에서 훈련받고 있었으며, Juba 교역자협의회 사역, University of Juba 대학생선교, 중보기도모임, 지도자세미나 등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수십년간의 내전이 불과 몇년전 끝나고 뒤늦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개발을 시작했건만 워낙 없는 곳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시작하려다 보니 수단의 경제는 그야말로 과분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본 어떤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낙후되어 보이는데도 전반적으로 물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쌌습니다.

금년 2월에는 탄자니아 엠보코이 지교회의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Cletus Tukai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동안 벽돌을 굽고 벽을 쌓은 교회건물 위에 양철로 지붕을 덮는 과정에서 건축헌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중에는 나이로비 사역자훈련원 학생들의 탄자니아 선교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간 강의실에서 배운 목회이론을 실제 필드에서 적용하고 경험해보는 우리 사역자훈련원 프로그램의 필수과정입니다. 훈련원 본부 책임자인 Nicholas Alalia 목사님의 인솔하에 총 13명이 Tukai 선교사님의 탄자니아 Moshi 목회현장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배우며 돕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가호호 축호전도훈련 중에 절름발이 소년이 치유받은 간증이 동네에 퍼짐으로 무당(witchcraft)이 들끓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 전도자(preacher)들의 봉사



인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심지어는 언론인들의 귀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실습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학생들에게는 목회관을 넓히고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들을 통해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를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변화해가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소식들은 우리들의

선교지 삶을 실로 살맛나게 해주곤 합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다보면 우리는 일부 사역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반목, 열등감, 비교의식 및 소위 '비전'의 탈을 쓰고 있는 야심 등을 바라보며 종종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소요사태때에도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소요사태의 뿌리는 다름아닌 케냐 사회에 지난 수십년간 깊이 자리잡아온 반목과 비교의식입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지요. 남이 잘되는 모습은 보기싫지만 나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잘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이 지난 선거철 정치대세의 흐름을 타고 드러난 셈입니다. 아마도 케냐 역사상 지난번 선거만큼 목회자들이 정치인들과 손잡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에 앞장선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간이야말로 바로 케냐 교계의 영적암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미국 Chicago에서 집결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학생시절중 저는 1988년에 열렸던 1차선교대회에 그리고 송 선교사는 1992년도 2차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교계의 상황같은 것은 문외한이었던 저는 모두가 ‘한팀(?)’이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들 중 몇분이 대회 중간에 서로를 비방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10년이 넘게 아프리카땅에서 섬기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안에도 이러한 반목과 비교의식의 모습이 마음 구석 저편에 늘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되면 기뻐하고, 혹 그 “일”에 문제가 있으면 답답해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일” 역시 결국은 따지고보면 비전을 빙자한 나 자신의 야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은혜로 세워진 많은 제자들과 교회들이 그저 내 자신의 “열심”에 홀로 취해서 전력투구한 결과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비전삼아 순수하게 그 분을 기쁘게하기 위해 하루하루 뛰었던 열매인가를 생각해보면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요즈음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인 것을 보게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종종 주의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내 모습 때문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한분만이 나의 삶의 뜻대가 되시고, 전적으로 그분을 나의 “비전”과 목표로 삼아 향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행사 및 기도 제목들

1. EAPTC 목회자/선교사들, 사역자훈련원들, 유치원, 교회들을 위해 (팀웍과 성장을 위해)
2. 앞으로 모든 사역이 더욱 현지인 리더쉽 중심이 되어 성장하도록
3. 8/8-8/20에 있을 말라위/잠비아 사역지 방문을 위해 (이 선교사, Chicago 단기선교팀 집회 인도 예정)
4. 어린이 사역을 위한 사무실과 센터 유치원 건물 확보(\$50,000)를 위해
5. Nairobi 사역자훈련원 본부 기숙사건축 및 확장공사(\$15,000)를 위해
6. 진규, 현규가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아프리카에서의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부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않는 주님만을 빛과 비전으로 삼아 계속하여 우리의 열심을 드릴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되신 주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일터, 교회, 사역지가 더욱 향긋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원해봅니다.

2008년 6월 4일

기도와 사랑 안에서,

이석로, 송재은, 진규, 현규 드립니다.

추신: 이곳에 그동안 여러 분들에게서 성탄절이나 명절을 맞이하여 소포로 선물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케냐 우체국의 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소포를 받는 절차가 꽤 까다로와 졌습니다. 선교지 형편상 앞으로 소포를 보내실 분들에게서는 미리 저희와 상의하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사: 이석로, 송재은

▪ 파송: 시애틀 한사랑 교회 (Tel. 1-253-813-0909)

▪ 소속: EAPTC 선교회

- EAPTC 선교회 미국 연락처 (Tel. 703-239-1144)
- EAPTC 선교회 한국 연락처 (Tel. 02-6413-2918)
- EAPTC 선교회 케냐 연락처 (Tel. 254-20-273-0940)